



주소 (36678) 경북 안동시 마지락길 77 사목국 못자리 담당 전화번호 054)858-3114~5 홈페이지 <http://cafe.daum.net/motzary>



못자리 친구들, 3월에 소개할 성지는 '원주교구와 춘천교구'의 성지들이에요. 원주교구의 성지 '배론'은 박해를 피해 신앙을 키워 나간 교우촌이고, 최양업 신부님의 묘가 있으며, 한국 교회 최초의 신학교 '성 요셉 신학당'이 있습니다. '풍수원성당'은 우리나라 세 번째 방인(邦人) 사제 정규하 아우구스티노 신부님이 지은 한국 최초의 성당이에요.

춘천교구의 '죽림동 순교 성지'는 한국전쟁 당시 북한 공산주의에 의해 희생된 '하느님의 종 홍용호 프란치스코 보르지아 주교와 동료 80위' 중 일곱 명의 순교 사제의 유해와 가묘가 모셔진 곳이에요.

못자리 친구들도 원주와 춘천교구로 성지 순례를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의 복음

3월 2일 연중 제8주일 <루카 6,39-45>

그때에 예수님께서서는 비유를 들어 제자들에게 39 이르셨다. "눈먼 이가 눈먼 이를 인도할 수야 없지 않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40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스승처럼 될 것이다. 41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42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아우야! 가만,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 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네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뚜렷이 보고 빼낼 수 있을 것이다. 43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다. 또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44 나무는 모두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거두어들이지 못한다. 45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곳간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자는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신부님의 주일학교 시절



Fr.김우진 베드로

주일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김우진 베드로 신부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세례와 첫영성체를 함께 받았지만
주일학교에 나가지 않고 바로 냉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있는 교목실이라는 곳에서 활동하며 다시 성당에
열심히 나갔는데요. 그때 활동하던 사진입니다.
주일학교 친구들도 나중에 대학생이 되면
본당 청년회나 대학교 교목실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 리 들 이 야 기 ★



★남성동 성당 3학년 전우찬 안드레아

예수님께서서는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번에 저도 동생과 놀다가 동생이 만든 전투기 장난감을 모르고 망가트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동생이 조금만 부품하나만 가져간다고 해도 짜증을 내고 화를 냈어요. 그때 동생에게 그 작은 부품을 주면 더 사이 좋게 놀수 있었는데 이제는 작은부품을 주고 사이 좋게 놀거예요.



★남성동 성당 3학년 류채우 소피아

오늘의 복음

3월 9일 사순 제1주일 <루카 4,1-13>

그때에 1 예수님께서서는 성령으로 가득 차 요르단 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어, 2 사십 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 그 기간이 끝났을 때에 시장하셨다. 3 그런데 악마가 그분께,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4 예수님께서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5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한순간에 세계의 모든 나라를 보여 주며, 6 그분께 말하였다. "내가 저 나라들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내가 받은 것이니 내가 원하는 이에게 주는 것이요. 7 당신이 내 앞에 경배하면 모두 당신 차지가 될 것이요." 8 예수님께서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9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에서 밑으로 몸을 던져 보시오. 10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너를 보호하라고 명령하시리라.' 11 '행여 네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 주리라.'" 12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13 악마는 모든 유혹을 끝내고 다음 기회를 노리며 그분에게서 물러갔다.

탐3 퀴즈

오늘 복음에서 **주모송**에 있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	--	--

주모송: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주모경: 주님의 기도, 성모송

퍼즐

가로세로

악	징	선	권	재	성	령	광	야	힘
선	행	성	은	죄	악	사	순	시	기
전	화	위	복	덕	방	영	광	고	경
우	화	등	선	수	선	강	강	역	난
회	중	시	계	자	차	풍	치	사	명
복	개	명	영	기	흥	년	책	바	람
몰	망	상	예	근	아	공	덕	장	소
멸	락	복	주	머	니	경	계	주	이
중	소	리	음	악	승	배	심	원	장
권	세	요	르	단	강	갈	릴	레	아

1. ○○○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루카 6,42>
- 겉으로만 착한 체하는 사람.
2. 당신이 내 앞에 ○○하면 모두 당신 차지가 될 것이요. <루카4,7>
- 존경하여 공손히 절함.
3. ○○에 싸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님께서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세상을 떠나실 일을 말하고 있었다. <루카 9,31>
-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4.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할 것이다. <루카13,5>
- 망하여 없어짐.
5.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이 들어, 그가 곤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루카 15,14>
- 흉년으로 먹을 양식이 모자라 굶주림.

오늘의 복음

3월 16일 사순 제2주일 <루카 9,28~36>

그때에 28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다. 29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였다. 30 그리고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31 영광에 싸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세상을 떠나실 일을 말하고 있었다. 32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도 보았다. 33 그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떠나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34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데 구름이 일더니 그들을 덮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은 그만 겁이 났다. 35 이어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36 이러한 소리가 울린 뒤에는 예수님만 보였다. 제자들은 침묵을 지켜, 자기들이 본 것을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이달의 생활성가

재를 받으며

3월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순 기간이에요.

사순시기가 시작되는 첫날인 '재의 수요일'은

미사 중에 참회의 상징으로 재를 축복하여 이마에 재를 바르는 예식이 행해져요.



@종착 유튜브 - 제이팩 (Jesus Family)



다른 그림 찾기



↓ 다른 곳도 그림 찾으세요.



오늘의 복음

3월 23일 사순 제3주일 <루카 13,1-9>

1 바로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래아 사람들을 죽여 그들이 바치려던 제물을 피로 물들게 한 일을 예수님께 알렸다. 2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그 갈릴래아 사람들이 그러한 변을 당하였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래아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3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것처럼 멸망할 것이다. 4 또 실로암에 있던 탑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은 그 열여덟 사람, 너희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잘못을 하였다고 생각하느냐? 5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6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7 그래서 포도 재배인에게 일렀다. '보게, 내가 삼 년째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네. 그러니 이것을 잘라 버리게. 땅만 버릴 이유가 없지 않은가?' 8 그러자 포도 재배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9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잘라 버리십시오.'"

성경 도시

나자렛(Nazareth)

- 이스라엘 북부 관구에 위치한 도시이자 그리스도교 성지로 예수님의 고향으로 알려짐.
-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는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냐라고 무시 당할 정도로 작은 동네였음.
- 현대에는 7만 7천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이스라엘 북부에서 가장 큰 도시임.
- 예수님 시대에 히브리인들은 성이 없었기에 지역출신이나 특징인 이름의 자녀로 그 사람을 불렀음. 그래서 예수님을 나자렛 예수라고 부르게 됨.



희망의 순례자들



흙림동 성당 연풍성씨



목성동 성당 한티성씨



호전동 성당 신리성씨



오늘의 복음

3월 30일 사순 제4주일 <루카 15,1-3.11-32>

그때에 1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2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3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11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12 그런데 작은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13 며칠 뒤에 작은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14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곤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15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16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17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18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19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20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21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22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23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24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25 그때에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26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27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히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28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29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영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30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아 주시는군요.' 31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32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우 리 들 이 야 기 ★



★북면 성당 유치부 이지호 라파엘라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일한
큰아들 보다 집나갔다 돌아온
아들에게 잔치를 열어주는
복음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큰아들을 위해서도 잔치를 열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북면 성당 4학년 이정범 빅토르



<1주간> : 연중 제8주일

1. 오늘 복음을 읽고 빈 칸에 알맞은 단어를 쓰세요.

그때에 예수님께서서는 비유를 들어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먼 이가 ()먼 이를 인도할 수야 없지 않느냐? 둘 다 구렁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2. 오늘 복음을 읽고 나오는 과일을 모두 찾아보세요.

- ① 사과 ② 딸기 ③ 포도 ④ 무화과

<2주간> : 사순 제1주일

1. 오늘 복음을 읽고 빈 칸에 알맞은 단어를 넣으세요.

- ① 예수님께서서는 ()으로 가득 차 ()에서 돌아오셨다.
 ② 그리고 ()에 이끌려 ()로 가시어, ()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③ 당신이 ()이라면 이 ()더러 ()이 되라고 해 보시오.

2. 오늘 복음을 읽고 틀린 것을 고르세요.

- ①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 (O,X)
 ②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O,X)
 ③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O,X)

못자리 카페에

많이 많이
응모해 주세요.



<3주간> : 사순 제2주일

1. 오늘 복음을 읽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옷은 어떤 색으로 번쩍였나요?

- ① 금색 ② 검정색 ③ 흰색 ④ 무지개색

2. 오늘 복음을 읽고 베드로가 초막 세 개를 지어 준다고 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 ① 예수님 ② 엘리야 ③ 모세 ④ 야고보

<4주간> : 사순 제3주일

1. 오늘 복음을 읽고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 ① 빌라도가 베들레헴 사람들을 죽여 그들이 바치려던 제물을 피로 물들게 하였다.
②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③ 실로암에 있던 탑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은 사람은 열일곱 사람이다.
④ 어떤 사람이 자기 논밭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2. 오늘 복음을 읽고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쓰세요.

- ① 너희도 (회개, 용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② (오년, 삼년)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달리지 않았다.
③ 포도 재배인은 무화과 나무 둘레를 파서 거름을 준다고 하고 (내년, 올해)에는 열매가 맺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주간 퀴즈

<5주간> : 사순 제4주일

1. 오늘 복음을 읽고 괄호에 들어갈 말을 찾아 채워 보세요.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2. 오늘 복음을 읽고 나오는 동물을 모두 찾아보세요.

- ① 송아지 ② 푸른뱀 ③ 토끼 ④ 염소

메 모 장



성지순례 스템북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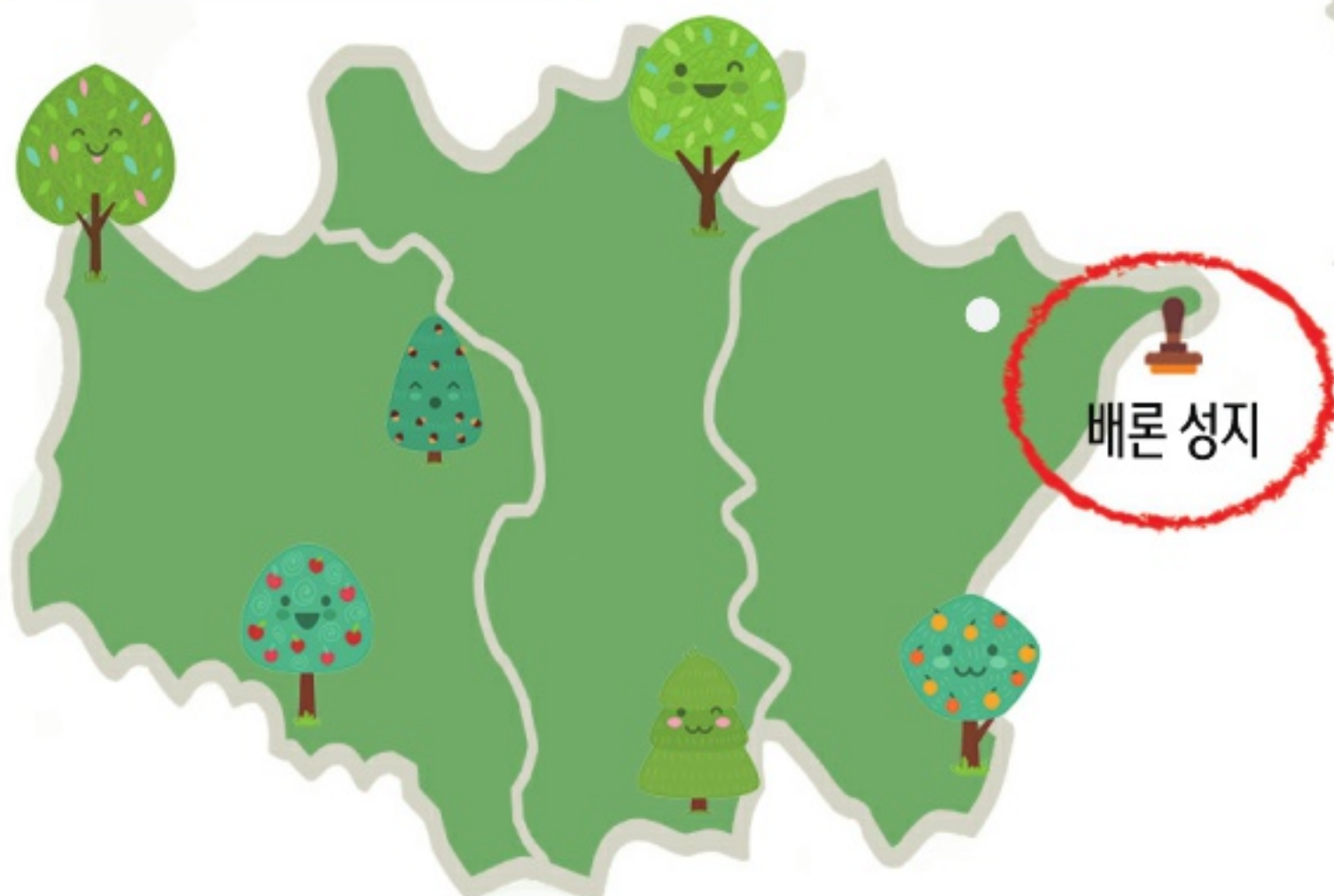


안동교구



서울대교구

원주교구



춘천교구



당첨자

1월 12일 정답자

갈전 마티아 윤이든 문재환

1월 19일 정답자

모전동 이지민 김아람

1월 26일 정답자

목성동 정주한

2월 2일 정답자

송현동 김윤슬



알림판

◆ 4월 못자리 "우리들 이야기" 순서

- 4월 06일 : 태화동 성당
- 4월 20일 : 하망동 성당

(※ 원고는 3월 4일까지 사목국 이메일로 보내주세요.)